

남극 세종기지 이어 장보고기지 월동연구대 파견 서해해경청 신길호 경위

“새 기지 부담 크지만 ‘진짜남극’ 제대로 배울 것”

완도 출신… 발전업무 담당

남극점서 불과 1700km 거리

극지방 자세한 탐사 가능

“남극에 두 번째 가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엄연히 다릅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세종과학기지보다 위도가 높아 더 춥고 남극기후에 훨씬 가깝습니다. 특히 새로 지어진 월동기지에 ‘인수 멤버’로 가는 만큼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지생활은 물론 연구방법까지 대원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새 기지에 간다는 부담이 크지만 그곳에서 ‘진짜 남극’을 제대로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달 12일 준공되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1차 월동연구대(대장 진동민) 15명이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월동대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과 기지 운영을 지원하는 발전담당 기술자, 요리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호주 시드니를 경유해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남극해를 건너 2월6일경 장보고과학기지에 닿을 예정이다. 1만 2750km에 이르는 대장정이다.

지난 24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남극 출발을 앞두고 한껏 상기된 표정의 신길호(47) 대원을 만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1월25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발전(發電)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세종과학기지에서 13개월간 발전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8년 만에 다시 남극을 찾게 됐다. 완도 출신인 그는 ‘장보고의 후예’로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진짜남극’을 간



지난 2006년 10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됐던 신길호 경위가 펭귄 군락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길호 경위 제공〉

다는 생각에 인터뷰 내내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세종과학기지는 남위 62도 지점이라 남극의 오로라, 극야현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도 66도 이상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남위 74도로 남극점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이아말로 진짜남극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과학기지와 약 4500km 떨어진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점에서 불과 1700km 떨어져 있다. 남극에 더 가까워진만큼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대원들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와 함께 해가 지지 않는 ‘백야’(11~2월)와 해가 뜨지 않는 ‘극야’(5~8월) 현상을 견뎌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파견된 15명 중 11명은 남극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원들로 선발됐다.

지난 1994년부터 해양경찰로 근무하며 10년 넘게 경비함정에서 생활한 신 대원은 배를 탔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남극기지에서 생활은 해양경찰함정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장비를 점검하고 아침식사를 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남극이란 극단적인 기후에서 기상상황과 대원들 몸 상태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일

과 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후 5시까지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문요리사가 주방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항상 푸짐하게 식사를 합니다. 저녁시간에는 주로 뉴스를 보거나 체력단련에 신경을 씁니다.”

남극으로 떠나는 신 대원은 “군수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8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흘려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난 2006년 갇히기였던 세 딸들이 어느덧 자라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남극에 갔을 때는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해 아쉬웠으며 이번에는 밤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오로라 등을 많이 찍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지자체 파산제 도입 찬반논란

정부, 만기부채 지급불능때 적용

방만 재정운영 안전장치 검토

광주·전남 3조원대…“정부책임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자체의 부채는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복지비 부담 전가 등 중앙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공적주체기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청산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내 지방부채는 지난 2012년 통합회계 기준 직영기업을 포함

한 지자체 부채 47조7395억원과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부채 52조4345억원을 합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31억원 적자로 지출 대비 적자 규모가 국가의 4.2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 부채는 경기도 2조 4535억원, 서울 1조3017억원, 경북 9941억원 등의 순이며 17개 시·도의 통합재정수지는 모두 적자이며, 전국 244개 시군구 중 238개 지역도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도 부채는 1조7409억원이며, 광주시는 1조5000억원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부채가 많은 것은 호화청사 건립, 수익성을 고려치 않은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고통화와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재정부담을 동반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하락해 지방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라 지방재정 부실은 중앙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방재정의 부실만을 기준으로 파산제를 운용한다면 광주·전남에서 살아남을 자치단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지난해 40.0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다. 전남도 역시 16.3%로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다음 주 단행

생계형 사면 6000여명 대상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할 예정이어서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

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으로 규모는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 13기·〈사진〉)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25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통한다. /연합뉴스



‘제2의 남극기지’ 극지방 기후·빙하운석 연구… 내달 12일 준공식

장보고과학기지는

장보고과학기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가 두 번째로 남극에 세운 연구기관으로 남극대륙 로스해 연안 테라노바반 인근에 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남위 74도 지점

에서 공사가 시작됐으며, 시설면적 4458㎡에 지상 4층 본관과 우주기상 관측동, 지자기 관측동, 발전소 등 10여 개 건물로 이뤄졌다. 주로 빙하학, 고층대기학, 지구 기후 변화와 운석 탐사 등 남극대륙과 극지방 기후를 연구하게 된다.

세종과학기지(1988년 준공)는 쇄빙연구선이 없던 시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역에 세워졌으며 남극 본 대륙이 아니

었다.

다음달 12일 준공식을 갖는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점에서 1700km 떨어진 남극대륙에 세워져 극지연구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빙하 속으로 약 2000m이상 구멍을 뚫어 1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를 밝혀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구온난화 연구와 더불어 빙하에 포함된 운석을

분석해 지구 탄생의 비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에 가입하면서 극지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 북극에 산과학기지(2002년)를 건설했으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2009년)를 운영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려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로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2014년도 협력업체 모집 공고

(주)서진종합건설에서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 공종 [22공종]**
토공,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구조물], 건축, 조적, 방수, 미장, 타일, 단열 및 흙흙, 도장, 금속 및 집철물, 수장유리, 창호, 석공사, 조경, 인테리어, 철거, 전기, 설비, 소방, 통신
- 신청자격**
 - 공종별 영위기간 3년 이상 경과한 회사
 - 시공능력평가액, 등록공종 전국순위 40%이내
 - 신용평가등급 B-이상이며, 현금흐름 B-이상 [신용평가기관]
- 등록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등록 및 제출서류	01. 24. ~ 02. 06.	우편제출: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상성길 71 (주)경방건설 E-mail : sns9114@hanmail.net	
서류평가	02. 07. ~ 02. 13.	※첨부서류 1.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등록신청공종의 건설업등록증 5. 기업신용 평가서 6. 품질환경 인증서 7. 시공능력순위확인서 8. 보유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증명서 9. 등록신청공종의 3년간 공사실적 총괄표 및 내역표 10.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11. 국제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공동주택 시공실적 우수업체 우대
등록심사	02. 14. ~ 02. 20.	(주)서진종합건설 외주팀 (당사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확정공고	02. 21. ~ 02. 25.	선정업체 심사 후 업체별 개별통보	

※ 관련문의 061-383-4332 담당자 허연실 과장

(주)서진종합건설